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3호 【루게 제24941호】 주제 104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연방 대통령

###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

나는 로씨야연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오늘 귀국에서는 사회정치생활과 경제,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성과와 진보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존엄과 리익이 굳건히 수호되고있습니다. 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친선관계가 새 세기에 들어와 최고위급에서 채택된 공동문건의 정신에 맞게 훌륭하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친선의 해인 올해에 쌍무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할것과 로씨야인민의 복리를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일 평양 주제104(2015)년 6월 12일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수리아농민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수리아농민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 단장인 하마드

##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로씨야준비위원회가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와 주체로 결성되었다. 협회위원장 예. 아. 베드로프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로씨야각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망라된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맞으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수리아준비위원회가 3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지역지도부 고등교육부장 파이루스 무싸가, 서기장으로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마히르 쿠르디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계기들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좌담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민주공화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일 긴사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민주공화국공산당, 민주공화국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조선친선 및 현대성현열의를 비롯한 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공화국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베셀레 칼론다가, 부위원장으로 민주공화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오메데 가스통 음보요가 선출되었다. 결성식에서는 10월 3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집회, 토론회,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며 조선인민과의 편대성 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준비위원회의 활동계획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및 조선해방 70돐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2일 빈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김정일주제사상연구 청년조직 책임자 토마스 뢰우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해방산호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하게 꾸리기 위해 수많은 정성비품과 우방물자, 꽃나무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태양의 성지에 변함없는 충정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광명해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남포출하도매소 지배인 정명옥은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전당을 수없이 찾아 순결한 공민적 마음을 바치였다. 국제친선전람관 산하단위 로동자 김옥빈은

가정에 둘러주신 백두산철출취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해갈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기제들을 기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일념밑에 리파대학 학부장 김지용은 영원한 태양의 성지를 빛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리혜경은 수령영생 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심장 깊이 새겨안고 금수산태양궁전꾸리기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향기그윽한 화환속에 길이 모셔갈 마음안고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안전성연구소 연구사 최진혁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에 달려나가 충정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많은 지체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림은철은 여러차례 금수산자리를 찾아 뜨거운 마음이 깃든 물자들을 안겨주며 금수산태양궁전꾸리기에 참가한 건설자들을 적극 도와주었다. 농업성 중앙식물방역소 검사원 김옥영도 수만 포기의 백두리지를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태양의 성지꾸리기를 10여차례 걸쳐 지원할것을 다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따르기에 수호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라고 하였다. 김정일동지는 더욱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행사들에는 따르끼스편곡산단, 제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앙골라위원회,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베루민족 독립운동과 베루 리마시의 각계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따르끼스편곡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동일과 단결을 이룩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전투력있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정책적인 령도밑에 오늘 조선의 당과 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라고 하였다. 김정일동지는 더욱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행사들에는 따르끼스편곡산단, 제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앙골라위원회,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베루민족 독립운동과 베루 리마시의 각계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따르끼스편곡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동일과 단결을 이룩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전투력있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의 위대한 수령들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통성변영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5월 19일과 22일에 만마, 베넌에서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을 진행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어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오늘의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만마평면평면대성발전당 양근지역위원회 집행위원 린 린 모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 령도 따라 주체혁명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에서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생활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1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각부총리,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부도, 당일군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4(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증명한 5건의 문헌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려 사상적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적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 기본인무와 내용, 원칙과 방법에 관한 리론을 완벽하게 행명한 불멸의 총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혁명적당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을 놓치고 사상사업을 제버리면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적일 모든것들이 변질되고 파괴되게 된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사상이며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는 것은 주체의 사상론에서 진수를 이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사상사업의 기본인무는 온 사회를 사회주의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라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지녀야 할 혁명사상, 사회주의사상은 주체사상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시였다. 사상사업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과 준비정도에 맞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사상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해주고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사상사업을 당의 령도밑에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상사업의 원칙과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장으로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 비범한 사상리론적역사가 빛발치는 자주시대의 기념비적문헌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태하는 《사회주의는 사상에 의하여

확립되고 사상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한다는 사회》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과학적인 사회주의사상이 나오고 그 사상으로 각성되고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탄생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심화발전시켜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탄생하였다.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본태를 고수하면서 승승장구해나간다면 그 추동력을 잃버리고 찾아도 없게 강해가나간다. 사회주의의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정신력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사상론을 민중의 무기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에 의하여 당과 국가, 무역, 경제,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사상건설의 위력으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자랑찬 승리로 빛내어 오시였다. 결국 사회주의사상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추동력이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목적의적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완성되는 사회이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는 사회주의사상사업의 기본인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경은 그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첫째로, 사회주의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발전 완성되는 사회이기때문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심화발전시켜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탄생하였다.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본태를 고수하면서 승승장구해나간다면 그 추동력을 잃버리고 찾아도 없게 강해가나간다. 사회주의의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정신력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사상론을 민중의 무기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에 의하여 당과 국가, 무역, 경제,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사상건설의 위력으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자랑찬 승리로 빛내어 오시였다. 결국 사회주의사상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추동력이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목적의적적인 투쟁에 의하여

투쟁을 벌려야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열렬한 애국심과 확고한 혁명적신념, 투철한 반세계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게 되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한몸바쳐나가는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온 사회의 위대성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적사상공세의 일색이 세계에 울리고있다. 조선로동당총서장 사상장 겸 책임주필 리영철은 《당은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제목에서 당의 정오한 사회주의사상사업의 생명선이라는 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사상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사상사업의 혁명적, 사회주의적성격을 고수해나기 위한 혁명적사상공세의 모든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혁명적당은 사회주의위업을 조지 령도하는 최고의 정치조직이며 사상사업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본태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혁명적당은 모든 활동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들어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과정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로 개조변혁해나가는 과정이며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는 혁명적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혁명적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유일한 령도적정치조직이며 사상사업의 원리와 원칙, 내용과 방법을 마련

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신념을 확고히 무장하도록 한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 핵으로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실현한 강위력한 정치적합모부르 되었다. 현시기 당사상건설에 먼저 불을 지피고 혁명적사상공세의 위력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강히 높여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당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본태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밑에 모든 사회성원들을 철저히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선 혁명의 사상전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고급당학교 초급당비서 김승식은 《주체의 사상론을 최후 승리의 강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상을 유일무이한 무기, 가장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의 힘으로 자기의 역사적전진권을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당조직들과 사상일군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수뇌부를 멘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드세게 벌려나간다. 사상적일색화를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 핵으로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실현한 강위력한 정치적합모부르 되었다. 현시기 당사상건설에 먼저 불을 지피고 혁명적사상공세의 위력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강히 높여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당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본태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밑에 모든 사회성원들을 철저히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선 혁명의 사상전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고급당학교 초급당비서 김승식은 《주체의 사상론을 최후 승리의 강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상을 유일무이한 무기, 가장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의 힘으로 자기의 역사적전진권을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당조직들과 사상일군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조선중앙통신】





# 교육사업을 우리 식으로 혁신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자

## 혁신적인 일본새가 낳은 훌륭한 결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실험실습실들을 해당 학부나 위치 한 건물에 꾸러놓고있다. 하도 오랜 세월 굳어져버려버렸던 것이라 이에 대항해서는 누구도 별 다른 생각하지 않고있다. 그러다보니 대학에서는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을 위해 많은 품을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학부들사이의 긴밀한 연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 일정한 제한을 받고있다.

바로 이런 낡은 틀거리를 대담하게 마스고 자기 식으로 새롭게 사고하고 실천하여 대학적인 규모의 종합적인 실험실습 및 첨단제품개발기지를 1년 동안에 구축하는 것이 바로 평양기계종합대학의 실용적인 사업성이다.

그러면 종합적인 실험실습 및 첨단제품개발기지의 우월성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육의 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도야라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나 인재를 특히 과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과학자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사실 실험실습실들을 갱신하고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것은 어느 교육단위에서나 중요시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평양기계종합대학의 일군들은 이 문제를 새로운 판

### 평양기계종합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점에서 보고 대항하였다. 실험실습실들과 첨단제품개발실들의 전개방식까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 가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일군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실험실습실습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대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침체는 없었다.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하여 완전히 새롭게 꾸려야 하였던 것이다.

나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드디어 현대적건축미를 갖춘 건물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 매 학부, 학과, 연구소 등에 분산되어있던 많은 실험실습실과 첨단제품개발실들이 20개소로 통합정리되어 모두 한 건물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되니 우선 실험실습교육의 현대화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대 대학에는 서로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실험실습실들이 있거나 서로 비슷한 사명을 수행하는 실들이 많았다. 지금의 자동화공학실험실습실은 정보공학공학, 응용전자공학, 조종공학 등의 실험실습실들이 합쳐진 것이다.

이런 통합과정에 제기된 것이 실험실습실문제였다. 한곳에 모아놓고보니 낡고 뒤떨어진 것들이 드러났던 것이다.

대학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것은 폐기하거나 이관하고 남은 설비

들은 컴퓨터와 결합하는 등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건물안에 집결한 3차원인쇄기계작도마감장치서도 CNC기술이 도입되어서 서로의 경쟁심도 현대화 사업을 더욱 추동하였다.

실험실습실들이 현대적으로 꾸러지니 그에 맞게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사업도 부쩍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뒤떨어진 설비를 놓고 실험실습을 진행하더니 아무리 애써도 교육내용개선 사업이 잘 진척되지 못했다. 그런데 비록한 토양에 풍만한 가을이 온다고 설비현대화를 선행하니 교육내용의 사고와 실천이 자연히 교육내용의 현대화에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과학연구활동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한건물공동 연구사업도 하고 첨단제품도 개발하는 사업에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경질합금공구, 핵심조종장치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자체로 제작하는 전압주파수인장장치 등의 연구와 생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과가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3차원인쇄기계작도마감장치서도 CNC기술이 도입되어서 서로의 경쟁심도 현대화 사업을 더욱 추동하였다.

실험실습실습 및 첨단제품개발기지를 꾸러놓은 결과 학생들의 학습열의도 대단히 높아졌다.

대학에서는 실험실습과정의 공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재미를 붙이게 만들었다.

자동화공학실험실습실습을 놓고 보자, 승강기조종장치와 로보트실험장치를 비롯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진 여기에서 제조기구 축산기전설에 필요한 첨단설비들을 만들고있다.

학생들은 여기서 실험실습도 하고 희망과 능력에 따라 첨단제품생산에도 참가하면서 강의에서 배운 리론을 현실에 직접 적용해보고있다. 한편 만들어 보는 식의 실습과정이나 나라 생산현황에 도입해야 할 실지제목을 만드는 과정은 그대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산지식을 주는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있다.

이렇게 교육을 현실과 밀착시켜 진행하니 학생들이 높은 열정을 불꽃처럼 내뿜고 있다.

생산실습의 효과도 더욱 높아져 출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에서는 여기까지 사업으로 하여 생산실습을 원만히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드물어 있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육중한 천정기둥과 같이 실지 현장에서 리용하는 것과 똑같은 설비들을 구비해놓고 실험실습을 진행하고 또 전기문제도 자체로 해결하니 그런 일이 생길리 만무한 것이다. 여기에 첨단제품생산 설비들도 있으니 실험실습설비자본 생산실습설로 되는 셈이다.

하나를 통해 열백을 얻는다고 평양기계종합대학 일군들은 낮은 것을 깨비리고 대담하게 종합적인 실험실습 및 첨단제품개발기지를 꾸러놓음으로써 교육문제를 이치런 성과파괴로 해결할 수 있었다.

대학창상 방순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혁신적인 안목과 판정을 지니고 모든 일을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해나갈 때만이 교육의 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일해왔을 뿐입니다.》

그 뜻을 음미해볼수록 교육부분의 일군들이 교육혁명의 불길들을 더욱 세게 타지워올리는 진정한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해야 하는가를 새겨주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렇다. 새 세기 교육혁명은 이런 혁신적인 안목과 판정을 지닌 일군들을 요구한다. 모든 교육일군들이 이치런 자기 의지로, 자기의 식대로 사고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그대 교육은 세계를 앞서나가며 더욱 높이 비약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한 경철

### 하나를 통해 열백을 얻을 수 있게

최근년간 최첨단과학기술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특히 3차원, 4차원, 5차원설계교육을 강화하면서 CNC기술과 나노기술, 무선국무망 등 첨단분야를 개척해나갈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에서 집적인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교육내용의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내용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교육사업을 하루빨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야심만만한 각오를 가지고 우선 교육내용을 개척하고 교육내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많은 품을 넣었다.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데서 대학이 틀어쥐고나간 것은 철저히 학생들의 종합적개발된 지식과 함께 탐구능력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말하여 하나를 배워 열을 융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 교육내용을 구성하도록 하

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정보망의 폭발적인 증가로 하여 학생들에게 배워주어야 할 지식량도 끊임 없이 늘어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본으로 배워 주어야 하는가.

대학에서는 전문기초를 튼튼히 다져주기 위해 원리교육을 심화시키는 데도 교육내용을 지향시키 나갔다.

이른 조전에 맞게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실험지도안, 실습지도안들도 최첨단수준에서 작성하며 현실에서 실지 쓰이는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대학교원들이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이룩한 성과들도 그대로 교수안에 반영되어 교육내용에서 첨단기술과 현실이 밀접히 결합되었다.

지금 교수사업에 리용되고있는 9 000여개에 달하는 강의안들과 1 800여건의 절그림들, 수백건의 다매체전집물들, 수십건에 달하는 교육전자프로그램들이 다 교원,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완성된 것들이다.

학생들이 졸업후 현실에 인차 적용되어 자기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 미더운 모습들은 이 대학 교육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임으로써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대학교육자들은 말한다.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모든 방도가 있다고.

본사기자 공 로혁

대학에는 CNC설비들을 갖춘 설계실과 함께 이동통신과 텔레비전계를 위한 설비들을 갖춘 실험실습실들도 그뿐이다. 여기에서 주변적인 주민들에 대한 봉사도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실험실습기로서서의 사명도 수행하고있다.

또한 최첨단수준의 설비들을 갖춘 워킹 기계공공기기도 학생들의 실험실습실습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이런 조전에 맞게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실험지도안, 실습지도안들도 최첨단수준에서 작성하며 현실에서 실지 쓰이는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대학교원들이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이룩한 성과들도 그대로 교수안에 반영되어 교육내용에서 첨단기술과 현실이 밀접히 결합되었다.

지금 교수사업에 리용되고있는 9 000여개에 달하는 강의안들과 1 800여건의 절그림들, 수백건의 다매체전집물들, 수십건에 달하는 교육전자프로그램들이 다 교원,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완성된 것들이다.

학생들이 졸업후 현실에 인차 적용되어 자기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 미더운 모습들은 이 대학 교육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임으로써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대학교육자들은 말한다.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모든 방도가 있다고.

본사기자 김 명훈

## 교육조건을 훌륭히 갖추어놓을 함흥수리동력대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함흥수리동력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대학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보다 튼튼히 다지는 데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학에서는 몇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10여개에 달하는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모든 교실들에 컴퓨터, 액정 텔레비전, 카메라, 실물현시대 등 여러가지 교실설비들을 설치하고 컴퓨터구내망을 구축해놓았다.

그러하여 교원들은 교수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과외학습시간에 자기 책상에 앉아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부에 대한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교직원들간에 자기 책상에 앉아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부에 대한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교직원들간에 자기 책상에 앉아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부에 대한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교직원들간에 자기 책상에 앉아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등업적에 뜨겁게 여기는 대학의 교육조건을 더 잘 갖추기 위하여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서 교실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갔다.

그들은 다기능화된 교실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여러가지 정보설비들을 마련하여 교실들에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도서관과 모든 교실들을 컴퓨터구내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공사도 훌륭히 완성하였다.

복합화력발전현장기업소, 순천회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이 대학에 필요한 정보설비들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대학에서는 자체로 건설한 성천강계단식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넣어 다기능화된 교실들이 실질적인 은을 내도록 하고있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최평기자 박 동석

## 모든 사업을 학풍을 세우는데 지향시켜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에 학생들의 실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광범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학교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 학풍을 확립해나가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을 밀고나가면서 학교에서 실천되어 있다. 학풍실적 경쟁을 방법론적 차별성이다.

학교에서는 전체 교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학생들의 실력을 추켜세우도록 하였다. 그전에는 학급별실적경쟁총화사업을 주로 담당교원들만을 놓고 진행하다 보니 과목담당교원들의 역할이 강화되지 못하였다.

책임한계 명백치 않은 결과 그들은 학급별실적경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학교일군들은 과목담당교원들의 학습지도정향에 대한 총화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교원들의 경험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여 교원들 사이의 경쟁의욕을 더한층 높여 주었다.

결국 학급별실적경쟁은 교원들 사이의 경쟁으로 되어버렸다. 과목담당교원들이 많이 많도록 교실들을 찾아다니며 학습지도를 잘해나갔다. 결과 학생들은 과외학습시간에 그 배운 수업내용에 대한 토론과 론쟁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였으며 교원들은 분분하고 다음날에 배워 줄 교제연구주제를 정하는 데도

도를 잘해나갔다. 결과 학생들은 과외학습시간에 그 배운 수업내용에 대한 토론과 론쟁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였으며 교원들은 분분하고 다음날에 배워 줄 교제연구주제를 정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이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시험문제를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높여주는 방향에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일군들은 자신들이 직접 교과서내용을 연구한 데 기초하여 시험문제를 제출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시험문제 방향이 고정적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이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

하나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배운 지식과 관련된 현실질문문제가 제시되어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충분히 깊이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오만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자연히 수업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파고들어 진지하게 학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학교일군들이 시험문제 제출을 혁신적으로 진행하여 교원들도 높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실력관계 사업을 보다 새롭고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이것은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이

학교 일군들의 사업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실례에 속해 있다.

학풍이 서가는 속에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도 눈에 띄게 올라갔다. 올해에 거둔 성과도 결국은 교정에 이런 학풍을 세운 결과였다.

모든 학생들이 강성국가건설에 실지로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계속하고 앞으로 일명중단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자면 학풍을 세우는 사업을 첫 공경으로 삼고 강하게, 꾸준히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이 실천학풍을 통하여 다시금 확충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본사기자 김 명훈

이렇게 학교일군들이 시험문제 제출을 혁신적으로 진행하여 교원들도 높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실력관계 사업을 보다 새롭고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이것은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이



##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참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주년을 즈음하여 진행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11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사업수행에 쌓인 백두산결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이천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 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겨레의 지를 담아 기념탑이 훌륭히 건립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헌장부제군상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의례 방문

우리의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두 당과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두 당과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 로씨야 특명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평양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국경절에 즈음하여 일련드르 마찌고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가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내각부총리 로두첸동지와 박찬문문화장,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궁석승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조선로씨야연방 의원단 위원장인 흥서현 김백공명 종합대학 총장, 관계부인 일군들과 주조 외교 부총리 주조 대표들,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일련드르 마찌고라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적이고 친선적인 관계를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에서 최근에 진행된 고위급대표단의 접촉과 협상은 협조관계를 확대

## 흥원군 문화협동농장의 일터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향원군 문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어머니 수령님의 평등업적이 깃든 자기의 일터와 마을을 군의 본보기가 되게 꾸러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베네수엘라공산당은 앞으로 조국통일사업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다. 또한 현재적사정들을 가지고있는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운흥광산 보이라작업반 반장 김영식동무

운흥광산 보이라작업반 반장 김영식동무가 최근에 창안제작한 자연순환식무동력보이라는 연료용 종전에 비해 훨씬 절약하면서도 열효율이 높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김영식동무는 40년간 보이라작업반에서 일해오면서 연료 소비를 낮추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많이 창안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자연순환식무동력보이라도 그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그는 처음에 작업반원들과 힘을 합쳐 비동식보이로라를 설치하였다.

그러면 생각했던것보다 열효율이 높지 못하였고 연료가 계속 연소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함이 있었다.

그는 막심하지 않고 강제순환식보이로라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송풍기와 펌프를 돌리느라 적지 않은 전기가 소비되었다.

김영식동무는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 수심20미터까지의 광풍에서 건물의 난방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보이로라를 기술적으로

## 효를 실현한 난방용 보이라 제작

개조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제일 결정한 것은 연료순환식 무동력 보이로라였다. 연료용 종전에 비해 훨씬 절약하면서도 열효율이 높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김영식동무는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 수심20미터까지의 광풍에서 건물의 난방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보이로라를 기술적으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수리아동민총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리승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22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카르 피레를 의례 방문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오스카르 피레 총비서에게 보내신 사투리인사를 전하였다.

총비서 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이 충심으로 되는 뜻깊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의례 방문

우리의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두 당과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두 당과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수리아동민총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리승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22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카르 피레를 의례 방문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이 충심으로 되는 뜻깊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수리아동민총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리승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22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카르 피레를 의례 방문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이 충심으로 되는 뜻깊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수리아동민총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리승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22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카르 피레를 의례 방문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이 충심으로 되는 뜻깊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수리아동민총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리승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22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카르 피레를 의례 방문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이 충심으로 되는 뜻깊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수리아동민총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리승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22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카르 피레를 의례 방문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이 충심으로 되는 뜻깊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수리아동민총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리승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22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카르 피레를 의례 방문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이 충심으로 되는 뜻깊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

# 자주통일시대의 려명을 안아오신 민족사적공적

자주통일시대의 려명을 불러 온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5돐이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분열상층을 초월하여 남북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쁘게 만났던 것은 6.15공동선언을 제시해주셨던 자주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는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안겨준 불멸의 민족사적공적이었다.

하기에 온 겨레는 탁월한 사상과 명도력, 고매한 품도로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실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자주통일의 거장인 김정일동지의 강인담탄 배짱과 비범한 명도적수완을 떠나서는 21세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자주통일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6.15공동선언의 탄생을 논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김정일동지님의 자주통일의지와 대담함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적공적이다.》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던 날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남조선인민들이 퍼친 위인효도, 위인칭송의 목소리였다.

우리 절세의 위인을 헌없이 경모하는 남녘겨레의 목소리들이 다시 커기울여보자.

서해대학교의 한 교수는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조선은 자주정치로 명망높은 김정일동지님을 민족이 낳은 영웅으로 호모해왔다. 그분의 자주통일의지가 담긴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낳는 가치가 너무도 높아온것이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겨레의 대담의 꿈을 실현해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이라고 칭송하였다. 김정일동지님의 자주통일방향을 잘 받들어나갈 때 우리 겨레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은 문제없을것이다.》

자기 집안의 벽에 《우리 민족끼리》라고 쓴 족자를 걸어놓고 늘 통일애국의 의지를 다진다는 광우에 있는 통일운동단체선원 어느날 집을 찾아온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이 대명제의 참뜻을 깊이 새겨볼수록 통일의 숨결이 느껴지고 싶고 회일이 넘쳐난다. 이 명제는 7천만 겨레의 가슴마다에 자주통일의 의지를 깊이 심어주고있다. 용양처럼 끓어넘치는 민족애, 조국애가 없어야 이런 대명제를 이 누가 내놓을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끼리》를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의 표대로 들고나갈수 있게 해주신분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다. 그 무엇보다도 겨레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조국통일의 양양한 정념을 열어나신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다.

그이의 통일방향을 받들어나가는것을 생의 목표로 삼고 투쟁하는 애국애국의 한성원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뭉뚱해진다.》

이것을 애저 그의 심정뿐이라고만 하라.

남조선의 한 정치학자는 동료들과 가진 어느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인이 있는 곳에는 훌륭한 정치가 펼쳐지지만 어떤 곳도 그곳으로 풀리는 민심을 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도 이남민중은 6.15평상사상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결의하고 소탈하신 품성과 뛰어난 정치실력에 탄복해하지 않았다. 그나름의 감동을 잊지 못했다.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할수 있었던것은, 분열주의자들의 도전을 박차고 민족의 통일운동이 더욱이 전진할수 있었는것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펼치신 자주통일의 리정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민족의 리익을 찾아내 놓고 민족의 존엄에 대한 침해를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념이 현실을 대항하게 펼치는 거창한 헌신 선군정치가 대단하다. 선군은 분명히 애국이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기네에서 기념행사 진행

북남공동선언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그는 계속하여 남조선의 리명박대당과 그후 남조선의 자리에 들어앉은 박근혜대당이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에 미쳐남북민족분열을 과격으로 몰아넣은 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철석같은 통일의지와 무한한 도량과 포용력에 의하여 2000년 6월 조선분류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최고위급상봉이 마련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공통선언은 조선민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선의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활황이 행해되었다.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전변은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할것을 확약한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재조선연수소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중은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이하게 된다.

공동선언발표는 조선통일운동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한다. 김정일동지의 철의 의지와 무한한 도량과 포용력에 의하여 2000년 6월 조선분류사상 처음으로 북남최고위급상봉이 진행되었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었다.

현 남조선당국자인 박근혜도 리명박의 전횡을 밟으면서 《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분열상층을 초월하여 남북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쁘게 만났던 것은 6.15공동선언을 제시해주셨던 자주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는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안겨준 불멸의 민족사적공적이었다.

# 우리 로동계급은 남조선 괴뢰패당의 흉악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단호히 박살낼것이다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괴뢰패당이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있으며 또 하나의 반공화국모략패당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괴뢰패당은 어용연구기관들과 어중어떠중이반공화국 《인권》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노동생활을 벌리는 데 대해 무슨 《에로토》이니, 《착취》니 뭐니 하는 극히 도발적인 모략담화들을 제쳐내며 비방중상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5월말 서울에서 벌어졌은 미일6차회담대표들과의 모의탁우에 핵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 둘러놓고 그것을 새로운 《대북압박소제》로 새먹는 데 합의를 하였으며 미국 등 적대세력들과 함께 국제기구들까지 부추겨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해 버리고 발표하고있다.

그야말로 동족을 모욕하고 물어뜯는 데 환장한 대결병자들인 괴뢰패당만이 감행할수 있는 가장 비렬하고 추악한 도발행위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남조선괴뢰패당의 흉악한 《인권》모략소동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을 훼손하려는 용납 못할 도전에요,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함정수 없는 모독으로 판박이하면서 전체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관한다.

괴뢰들이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 철두철미히 허위와 거짓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실단결된 우리의 제도를 흔들여 어떻게 하나 《세계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데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괴뢰패당이 지금까지 우리를 모욕하는 악담들을 입이 마를새 없이 하였지만 차례차례는 내외의 환멸과 비난, 조소뿐이었다.

괴뢰패당은 너절한 인간사레기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벌리다가 그 《모략적전장》이 만천하에 드러나 개교망신을 당하게 되자 이른바 우리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 외곡남조하여 이미 거덜나 《대북압박소제》를 뒤살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인권》소동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알려진것처럼 최근 괴뢰들은 유엔의 불거지를 쓴 어중어떠중이들과 《북인전사무소》의 서술적필을 확정된 형정판정음을 벌린데 이어 이달중에 정식 문을 열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각계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북인전법》이라는것을 어떻게든 부실채취하려고 기수를 부리고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괴뢰당국자들은 입만 터지면 《북인전》나발을 불어대며 우리를 모욕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구걸하고있다. 얼마전에 박근혜는 어느 한 나라의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 무슨 《인권상황개선》이니 뭐니 하고 수작질하며 저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지지해줄것을 애걸하였다. 이것을 통해 의외와 아찔한 괴뢰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행동이 핵소동 못지 않은 판타지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미국, 일본, 남조선괴뢰들의 6차회담수석대표회의를 놓고보면 더욱 그렇다. 이날 그 무슨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간판에 벌어진 반공화국대외선언의 판에서 괴뢰들은 미일상정들과 함께

회의의 성격과는 허등의 상관도 없는 《북인권》나발을 또다시 불어냈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패당은 회의에서 《북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핵문제를 논의한다고 모였을자들이 그 마당에 반공화국 《인권》모략으로 만들어 제재와 압력의 강화에 대해 호소하였다.

이것은 괴뢰들이 반공화국 핵소동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않게 되자 《인권》모략에 눈을 뜨고서 그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엔인권총회 기구-아시아회의 개막식에 그들을 들이민 윤병철대사는 그 무슨 기조연설이라는것을 하면서 회의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의 장로로 만들려고 피하였다. 이것은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수면에서도 《북을 바라보는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북핵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이지만 《인권》문제는 《북문제》의 일부뿐이라고 넋두리를 하였다. 국제인권위원회는 6차회담수석대표회의를 놓고보면 더욱 그렇다. 이날 그 무슨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간판에 벌어진 반공화국대외선언의 판에서 괴뢰들은 미일상정들과 함께

수석대표들의 협의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평하였다. 사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추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시사해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국제적인 반공화국핵소동은 이미 그 실체가 뚜렷해졌다. 미국이 지극히 모략적 《인권》모략을 벌이며 그 무슨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을 내걸고 대화를 거부하며 우리에게 대한 정치적 경제제재와 군사적압력에 기수를 부러였지만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병전로선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었다.

최근에 있는 우리의 전략적수완 란도란수준시험발사의 완전선진 선진조선의 내외의 막강한 군사적위력을 내외의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건으로서 반공화국핵소동에 미쳐남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을 기절초풍해 하였다.

금해에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대북정책》과판으로 부러의 출로를 찾으면서 이미 겁이 빠진 핵소동의 빈 공간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으로 채우려고 발랑하고있다. 반공화국핵소동이 전혀 맥을 주지 못하는 속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이 날로 강화되자 당황망조한 미국과 괴뢰패당은 물에 빠진자 지루하게라도 잡는 격으로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에 대해

본사기자 장윤남

# 단 평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청와대가 또다시 민심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는데 청와대개거리들이 제 살구멍만 판것이다.

전염병이 나오는 속도로 전파되고 사망자들이 연이어 나오고있는 속에 남조선전역에서 유치원, 학교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이로부터 주민들은 당국이 필요한 곳들에 열간지기를 설치하는 등 전염병에방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제정난을 구실로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괴뢰들이 청와대에 물레 열간지기를 설치하고 응징을 꺼려하 출입하는 인원들을 검사통제한 사실이 등장했다.

이것이 청와대개거리들에 대한 성난 민심의 목소리이다.

리 호 진

# 반공화국적대정책 철회하라,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라

남조선 각계 괴뢰당국에 항의하여 풍성

6.15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 민족공동행사가 파란되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단적 시기 《정부》가 부과한 반공화국적대정책을 철회하여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군사적압박과

# 반인민적악정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

현 괴뢰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과 파쇼폭압으로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있는 남조선사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생지옥, 인권불모지이다.

팔려가는 불쌍한 아이들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어린아이들을 《해외입양》의 간판에 다른 나라들에 팔아먹고있는것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21세기인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이 비극이 계속되고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방사육아복지원아이일시호소소》라는 《입양》기관에는 현재 40여명의 의지가할데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팔려갈 날만을 기다리고있다. 지난해 이곳에서 해외로 팔려간 아이들은 5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영적의 산골 - 로동자자살현상

지난 5월 10일 현 괴뢰집권자의 동생 박지만이 운영하는 어느 한 회사의 로동자가 부가 자기 집주변의 야산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그는 지금 2차에 걸쳐 해고당하

현 괴뢰집권자가 지난 2013년 《입양특례법》이라는것을 꾸민데로부터 남조선에서는 해외로 팔려가는 아이들이 대폭 늘어나고있으며 사회질서를 일으키고있다.

《해외입양》을 좋은 돈벌이수단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보아주기 위한 《희생의 방도》로 삼고있는 괴뢰수배대의 반역적악정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뜻밖에도 어린 아이들이 사회질서와 빈곤속에서 살아가고있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사산하고 물살은 다른 나라들에 팔려가고있다.

이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대립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장의 기자회견까지 걸고들었다고 하면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사태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라고 개탄하였다.

전염병사태를 빚어낸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이에 대해 전하한 남조선의 한 언론은 현 괴뢰집권자 등장한 이후 로조탄압과 정리해고소동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하면서 괴뢰당국과 회사의 책동에 항거하고있다.

물대포발사량 최고기록

지난 5월 1일 괴뢰패당은 《세월》호침몰의 진상규명과 생존자의 권리를 위해 대규모적인 반 《정부》투쟁에 떨치신 시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는 파쇼적악행을 저질렀다. 이날 괴뢰경찰이 서울의 어느 한 네거리에서 시위자들을 향해 물대포로 발사한 물량은 하루 밤사이에만도 무려 4만L에 달하였다.

이것은 괴뢰보수파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으며 감행한 반인민적악정의 일부분이다. 남조선에서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참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것은 괴뢰보수파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으며 감행한 반인민적악정의 일부분이다. 남조선에서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참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더욱이 남조선 각계의 적분

김 철 남



전염병사태를 빚어낸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반공화국적대정책 철회하라,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라

남조선 각계 괴뢰당국에 항의하여 풍성

6.15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 민족공동행사가 파란되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단적 시기 《정부》가 부과한 반공화국적대정책을 철회하여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군사적압박과

# 반인민적악정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

현 괴뢰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과 파쇼폭압으로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있는 남조선사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생지옥, 인권불모지이다.

팔려가는 불쌍한 아이들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어린아이들을 《해외입양》의 간판에 다른 나라들에 팔아먹고있는것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21세기인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이 비극이 계속되고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방사육아복지원아이일시호소소》라는 《입양》기관에는 현재 40여명의 의지가할데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팔려갈 날만을 기다리고있다. 지난해 이곳에서 해외로 팔려간 아이들은 5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영적의 산골 - 로동자자살현상

지난 5월 10일 현 괴뢰집권자의 동생 박지만이 운영하는 어느 한 회사의 로동자가 부가 자기 집주변의 야산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그는 지금 2차에 걸쳐 해고당하

현 괴뢰집권자가 지난 2013년 《입양특례법》이라는것을 꾸민데로부터 남조선에서는 해외로 팔려가는 아이들이 대폭 늘어나고있으며 사회질서를 일으키고있다.

《해외입양》을 좋은 돈벌이수단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보아주기 위한 《희생의 방도》로 삼고있는 괴뢰수배대의 반역적악정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뜻밖에도 어린 아이들이 사회질서와 빈곤속에서 살아가고있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사산하고 물살은 다른 나라들에 팔려가고있다.

이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대립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장의 기자회견까지 걸고들었다고 하면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사태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라고 개탄하였다.

전염병사태를 빚어낸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이에 대해 전하한 남조선의 한 언론은 현 괴뢰집권자 등장한 이후 로조탄압과 정리해고소동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하면서 괴뢰당국과 회사의 책동에 항거하고있다.

물대포발사량 최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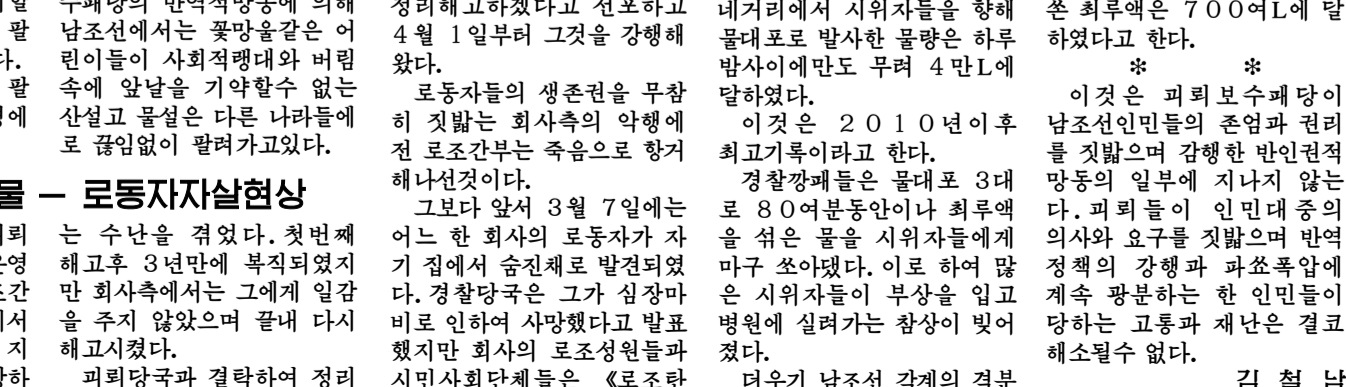
지난 5월 1일 괴뢰패당은 《세월》호침몰의 진상규명과 생존자의 권리를 위해 대규모적인 반 《정부》투쟁에 떨치신 시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는 파쇼적악행을 저질렀다. 이날 괴뢰경찰이 서울의 어느 한 네거리에서 시위자들을 향해 물대포로 발사한 물량은 하루 밤사이에만도 무려 4만L에 달하였다.

이것은 괴뢰보수파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으며 감행한 반인민적악정의 일부분이다. 남조선에서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참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것은 괴뢰보수파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으며 감행한 반인민적악정의 일부분이다. 남조선에서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참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더욱이 남조선 각계의 적분

김 철 남



전염병사태를 빚어낸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

70성상에 걸치는 우리 당의 력사, 그것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천만국민이 하나로 뭉쳐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승리와 영광만을 밝은 기쁨에 새겨 온 백전백승의 력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새기를 이어 자기의 혁명적정성과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 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당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수십년 단 한번의 로선상적으로 변함도 없이 자기의 원칙성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당의 모습에서 진보적인 유예 51년전 그날의 력사적의예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절감하고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6월 19일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안고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정일동지의 로정적화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정일동지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었다. 또한 선군정치로 기본적방향을 확립하고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진주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

켰다.》

인디아 김일성동지작업연구원 조진소 초 서기장은 한 강연에서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주시어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였으며 전당의 주체사상화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라고 불렀던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당을 창건하고 김정일동지 령도 하에 오로지 김정일동지께서 영연히 높이 올려주시고 주체사상을 변함없이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오도록 하시였다.》

외국의 벗들이 칭송하듯이 조선로동당이 백승만을 펼치는 강철의 대대로 자라나 높은 존엄과 영예를 빛내어온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주시기 때문이다.

위대한 강군님의 수심성상의 빛나는 당령도사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원칙성을 굳건히 고수하는 세계 혁명적당의 본보기로,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당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발칸반도슬라브족사회의 당의 고위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조선인민을 데서 그 어떤 로선상변함도 없이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것은 그의 심장의 고백이었다. 그로 말하면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모색하여야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당사업방법과 경험을 연구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해답을 똑똑히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로선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다. 파고들수록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울것들이었다.

머구 그를 무한히 격동시킨 것은 조선로동당이 수십년동안 자그마한 전향도 없이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고있는 것이었다.

(과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의 이러한 의문과 호기심은

《조선에서는 진당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당결되어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조선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당결되어있는 그러한 당, 그러한 나라는 없다.》고 격찬하였다.

미국선군정치연구소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지켜야 한다. 혁명적원칙에서 한걸음도 양보하면 두걸음, 열걸음 물러서게 된다. 이로 하여 잃게 되는 것은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며 차례대로는 세계 혁명적당들과 정치활동가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사들의 주관하에 세계 각지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월 19일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정명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백승의 력사와 더불어, 인류사주위업의 승리의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원칙, 로동계급원칙,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주체적방향에서 조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철하였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어려운 조건의 군사원리를 새롭게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반안전리사회가 밝힌데 의하면 군사원리의 수정은 우크라이나사태와 북아프리카, 수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로 하여 로씨야에 새로운 위위가 출현하고 로씨야국경 가까이에서 나토의 공격력이 강화되고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전개가 적극 추진되고있는 것과 관련된다.

새로운 군사원리에선 일반무력의 전투준비상태를 최고의 수준에서 유지하며 군사적충돌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로씨야의 주요과업이 구체화되고 추가되었다.

올해에 로씨야는 전략핵무력의 질적수준제고를 우선방향으로 정하고 5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위촉시키려 하고있다.

전략핵무력을 강화하고 2척의 전략잠수함을 항시적인 전투준비상태에 진입시킬것에도 전진하고있다.

지난 5월에 부연대통령은 국방문제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열어차에 사회화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항공우주방어군과 전략핵무력, 북핵공공의 장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토의되었고한다.

전투원들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있다. 로씨야국방성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반년기간에 로씨야군은 2000여명의 훈련 및 강습을 집행하였다.

경제의 질적성장을 보장하고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제제를 자기의 경제를 다각화하는 기회로 리용하고있다.

현재 로씨야는 무역거래의 4분의 1 이상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아세크) 성원국들과 진행하고있고있다.

##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편대성위원회 위원장이 강조

올리베르 요르스카이트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편대성위원회 위원장이 강조

우리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도 조선의 근로자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싶은 충동을 누를 길 없었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훌륭한 대중봉사지기를 건설하여 그 누구라도 모두가 즐거게 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문화적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보더 행복한 조선인민의 생활을 그려보았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눈이 없으면 버림받아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유럽에도 물놀이장들은 있지만 거기에선 돈있는 부유층이나 갈수 있고 일반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가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인민야외빙상장을 참관하면서 놀았다.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야외빙상장을 전문선수들이 아닌 근로인민에게 무료로 안겨주도록 하시겠다니 세상에 조선인민처럼 행복한

《조선중앙통신》

### 조선의 통일을 위한 연대성결의 채택

## 세계 직업연맹 위원장 사회 회의에서 조선의 통일을 위한 연대성결의 채택

7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직업연맹 위원장 사회 회의에서 조선의 통일을 위한 연대성결의가 채택되었다.

결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는 조선이 해방된 때로부터 일흔년이 되는 해이다.

온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기쁨과 환희로 들끓던 1945년, 바로 이때부터 조선반도에서는 민족분열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 반대로투쟁을 강화할데 대해 언급

파키스탄대통령 말은 후세인이 4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반대로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마지막대로분자를 소탕할 때까지 반대로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주민들이 단결하여 테러 반대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는 정부가 소수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파키스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 미국의 무장장비현대화책동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파업파시위

— 벨기에에서 5월 28일 처지개선을 위한 기관사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파업에는 많은 기관사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생활이 날로 악화되고있는 데 대해 항의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철차들의 운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 브라질에서의 리스본에서 6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그릇된 경제정책을 취하여 자기의 생활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 독일의 가르미슈파텐키르헨에서 7일 미국과 유럽동맹의 그릇된 협정체결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바이에른주에서 대시양행 단무역 및 투자동반자관계 협정체결을 위한 7개국군부싸움위원회가 소집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천명의 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 시위자들은 북을 두드리면서 도시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그릇된 경제정책을 취하여 자기의 생활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 독일의 가르미슈파텐키르헨에서 7일 미국과 유럽동맹의 그릇된 협정체결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바이에른주에서 대시양행 단무역 및 투자동반자관계 협정체결을 위한 7개국군부싸움위원회가 소집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천명의 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 시위자들은 북을 두드리면서 도시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그릇된 경제정책을 취하여 자기의 생활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 독일의 가르미슈파텐키르헨에서 7일 미국과 유럽동맹의 그릇된 협정체결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바이에른주에서 대시양행 단무역 및 투자동반자관계 협정체결을 위한 7개국군부싸움위원회가 소집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천명의 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 시위자들은 북을 두드리면서 도시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그릇된 경제정책을 취하여 자기의 생활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 이스라엘의 강점을 끌장발것을 호소

팔레스타인국민사회가 4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타인령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을 끌장발것을 호소하였다.

강점지역에서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당국의 탄압만행이 그치지 않고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성명은 강점지역을 기

## 적들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립장 천명

연설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이러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전진모를 발가놓자 이에 앙심을 품은 미국은 인권을 구실로 제제와 압력을 가하면서 이란정부를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수립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까발렸다.

미국은 제제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군사기밀들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이에 대처하여 저항경제정책을 펼쳐서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대외관계의 다각화로 대응하는 로씨야

에까지 이 나라의 진출이 확대되고있다.

평전의 승리에 도취되어있던 미국은 로씨야의 잠재력에 극도의 위급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은 핵 만년듯이 나토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적위협을 감을 일삼는것과 함께 경제제재를 수단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로씨야는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포위환을 뚫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

두 나라사이의 대결은 강대국의 지위를 뒤흔트리는 로씨야와 그를 억제하려는 미국사이의 리해관계의 충돌이며 평전의 연장이다.

과연 로미대결의 끝말은 어떻게 될것인가. 지금 여론들은 로미대결이 로씨야의 승리를 막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유엔의 평가가 아니다. 로씨야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었다. 특히 대외관계구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는것을 통하여 미국

## 여러 나라에서 자연 교해

6월 7일에서 7일 현재 16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카나리아의 엘바라에서 최근 산발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산발로 4만 3000여ha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대기가 심히 오염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오늘은 로씨야연방 국경일이다.

우리 인민은 국경절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는 로씨야인민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내고있다.

지금 로씨야는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지난해말 로씨야는 종전의 군사원리를 새롭게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반안전리사회가 밝힌데 의하면 군사원리의 수정은 우크라이나사태와 북아프리카, 수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로 하여 로씨야에 새로운 위위가 출현하고 로씨야국경 가까이에서 나토의 공격력이 강화되고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전개가 적극 추진되고있는 것과 관련된다.

새로운 군사원리에선 일반무력의 전투준비상태를 최고의 수준에서 유지하며 군사적충돌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로씨야의 주요과업이 구체화되고 추가되었다.

올해에 로씨야는 전략핵무력의 질적수준제고를 우선방향으로 정하고 5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위촉시키려 하고있다.

전략핵무력을 강화하고 2척의 전략잠수함을 항시적인 전투준비상태에 진입시킬것에도 전진하고있다.

지난 5월에 부연대통령은 국방문제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열어차에 사회화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항공우주방어군과 전략핵무력, 북핵공공의 장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토의되었고한다.

전투원들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있다. 로씨야국방성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반년기간에 로씨야군은 2000여명의 훈련 및 강습을 집행하였다.

경제의 질적성장을 보장하고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제제를 자기의 경제를 다각화하는 기회로 리용하고있다.

현재 로씨야는 무역거래의 4분의 1 이상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아세크) 성원국들과 진행하고있고있다.

## 여러 나라에서 자연 교해

6월 7일에서 7일 현재 16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카나리아의 엘바라에서 최근 산발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산발로 4만 3000여ha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대기가 심히 오염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

미국이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계속 발판으로 매여나오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2023년까지 C-17 수송기에 남아있는 미사일 등 무기를 소멸하는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